

# “가족내 의사소통과 가정관리행동”

—부산시 주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Communication  
in the Family and the Home Management Behavior—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이정우

동의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이정숙

Dept. of Home Management Sook Myung Univ.

prof.: Jung Woo Lee

Dept. of Home Management Dongeui Univ.

Assistant Prof.: Jung Sook Lee

## 〈 목 차 〉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및 절차

IV. 조사결과 및 분석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 between housewives' home management behavior and communication in the family, and find family environmental variables related to home management behavior and communication in the family.

In order to clarify the above stated problems, the data were obtained from questionnaires with 68 items. The selected sample is composed of 395 housewives in Pusan.

SAS Computer System was used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of the data.

The results were as follow.

(1) Home management behavior score showed 3.06(61.2%). Home management score of human-relationship was the highest, and that of house keeping was the lowest.

(2) Home management behavior was influenced by educational level and socioeconomic status.

(3) Communication in family score showed 3.51(70.2%). Communication of housewife-husband score was lower than communication of housewife-children.

(4) Communication in the family was influenced by housewives' age, educational level, numbers of children, duration of marriage and socio-economic status.

(5) There were positive relation between home management behavior and communication in the family.

(6) Influential variables related to home management behavior were communication in the family.

## I. 서 론

### 1. 문제의 제기

현대사회의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달은 사회의 가장 기본단위인 가정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각 개인의 신체적 유지를 위한 의·식·주의 제공과 출산을 통한 가족의 유지·발전, 자녀의 사회화, 가족 내에서의 질서유지, 가족 및 다른 집단의 과업수행을 위한 동기 및 도덕성 부여, 가족단위를 유지하기 위한 물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등의 구체적인 고유한 가정의 기능중에서 많은 부분이 사회로 이전되었다. 반면에 가족의 개인분화가 심화되어 정서적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가정의 중요성은 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가정이라는 범주안에서 생존과 생활을 위한 욕구충족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자질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인간의 궁극적 목표가 보다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가정관리행동을 통하여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가정관리행동이란 가족의 가치나 목표 그리고 표준에 근거하여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또한 창조하므로써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목적적인 활동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관리행동이 얼마나 잘 수행되었느냐에 따라 가족들이 얻는 만족이 달라지게 된다. 즉 가정관리의 주체가 되는 주부의 가정관리능력이 가족의 목표달성과 만족감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가정 내지 사회의 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가정관리의 질적 향

상이 요구된다.

그러나 복잡하고도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현대사회는 가족간의 개인심화와 가치·목표·표준 등의 차이가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가족을 중심으로 한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가족 간의 이해증진과 애정의 증진으로 주어진 생활여건 속에서 관리행동의 효율을 증진시킬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가정관리행동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게 된다. 특히 주부와 가족간의 의사소통과 가족환경적 변인이 가정관리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는 관리자의 행동향상을 위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가정관리행동과 가족내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는 주부와 가족내의 대화대상, 대화시간, 대화정도와의 관계(두경자, 1986), 관리과정별 의사소통과의 관계(이정우·오경희, 1988) 정도만이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도시주부의 가정관리행동과 주부-남편, 주부-자녀의 의사소통을 분석하고 주요 영향변인을 알아내어 가정관리행동의 질적 향상 및 가족의 행복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둔다.

### 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을 부산시에 거주하며, 자녀와의 대화때문에 국민학교 5학년이상의 자녀를 1명이상 둔 유배우자로 제한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 가족내 의사소통은 주부-남편, 주부-자녀로 대상을 제한하였다.

(3) 가족환경변인중, 사회경제적 지위 구분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구분하였으므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1. 가정관리행동과 관련연구

관리는 가치있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유목적적으로 자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관리자가 행하는 일련의 작업을 포함한 하나의 과정으로 정의되고 있으나 그 개념은 시대의 발전에 따라 계속 변화, 재형성, 재검토, 재발견되고 있다(Paolucci, 1964). Nickell, Rise와 Tucker(1976)에 의하면 관리행동은 가치의 실현과 욕구의 충족을 지향한 계획된 활동이며 바람직한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생활의 모든 국면, 즉 사회적·심리적·경제적·물질적·정신적·기술적 국면과 관련있는 과학적 제 발견과 지식을 활용하게 된다고 하여 관리행동의 총체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Deacon과 Maloch(1966)에 의하면, 가정관리는 하나의 체계이며 바람직한 가정생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고 과정을 작동시켜서 가족 및 개인의 자기실현을 달성해가는 일련의 의사결정 활동체계라 하여 체계적 접근방법을 제안한 이래 환경과의 상호작용적 측면에서 계속 연구가 되고 있다.

Baker(1979)는 모든 사회에서 생활의 질을 형성하는데 관리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가정관리란 가족의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힘이며 생명력이라 하였다. Gross, Crandall과 Knoll(1980)에 의하면, 가정관리는 가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원의 사용 및 창조를 포함한 목적적인 행동이며 가족의 자원사용 방법에 따라 생활의 질과 관계된다고 하였다. 이정우(1981)도 가정관리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관리자가 가족원들의 인적·물적 자원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계획·조정·평가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가정관리란 생활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합리적 가정관리는 부족한 자원으로 최대의 효용을 누릴 뿐 아니라 효용의 결과가 객관적으로 개개인의 개별적이고 인간적인 생존의 공핍을 해결하는데 이상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문숙재, 1981, 66).

Schweitzer(1968)는 가정내부와 외부에서 가정과 관련되어 일어나는 일체의 인간행동을 가정관리행동이라 규정짓고, 가정과 가정관리행동을 내용적인 측면에서 동일하게 취급하고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장소를 가정이라 하고,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을 가정관리행동이라 하였다.

문숙재(1980)에 의하면, 가정관리행동은 가정내부에서의 가정의 목적과 자원간의 상호관계와 가정과 문화와의 상호관계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하였다. 또한 주어진 환경의 사회문화적인 인생관에 의해서 개인 고유의 생활표준을 형성할 뿐 아니라 주어진 기술경제적 여건에 의해 어떤 특정한 생활표준을 지행한다. 따라서 한 가정의 특수한 가정관리행동의 양식은 욕구충족을 위하여 어떤 환경적 여건이 부여되었으며 또 이 여건속에서 목적달성을 위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문숙재, 1981, 70).

이상과 같이 관리의 행동면을 살펴본 결과, 본 연구에서의 가정관리행동은 가정생활의 질을 결정하고 그 목표 및 가치에 입각한 결정이라 보고, 가족 및 가정생활의 행복증진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통하여 가족자원의 사용을 계획하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조직, 조정하며 그 결과를 평가하여 보다 효율적인 다음 계획을 세워서 행동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국내에서의 가정관리행동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체계적 접근방법으로 각 과정별 관리행동을 분석하였으며, Beard와 Firebaugh(1975, 1978)의 환경변화에 대한 수용여부에 따른 관리행동유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조영희, 1986; 이정우·오경희, 1988). 즉 안정지향형과 변화지향형으로 구분하여,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을 규명하였다.

## 2. 가족내 의사소통과 가정관리행동

의사소통에 대한 개념은 관점에 따라 학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Shannon과 Weaver (1949)에 의하면, 광의의 의사소통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과정을 의미하며 그 수단으로 언어뿐만 아니라 음악·그림·연극·무용 등 모든 인간행위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Berelson과 Steiner(1964)는 의사소통이란 언어·그림·도형·도표 등과 같은 기호를 사용하여 정보·사상·감정·기술 등을 전달하는 행위나 과정이라고 하였다. Deacon과 Firebaugh(1975)는 메시지가 송신자에게서 수신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이 의사소통이며, 메시지는 언어적·비언어적 방법으로 전달되고 대인적 의사소통은 개인이 메시지를 전달하므로써 다른 사람 마음속의 의미를 자극시키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Nickell, Rise와 Tucker(1976)는 의사소통을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조직해서 한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수신자에게 보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인간의 상호작용 과정이라 했으며, Rise(1979)는 한 사람에게서 메시지가 보내져서 다른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사람들간의 감정, 태도, 사실, 신념 등을 전달하는 과정이라 하였다. Gross, crandall과 Knoll (1980)도 사람들간에 감정, 태도, 사실, 믿음, 생각을 전달하는 과정이라 하였으며, 개인간의 상호대화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를 이해하는 모든 수단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Adams(1980)에 의하면, 의사소통이란 우리가 말하는 내용과 그것을 말하는 방법을 포함하며, 이러한 의사소통은 자기개방, 분위기, 표정과 수신자의 편견 등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정의를 종합해 보면 의사소통이란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 과정으로 유기체들이 기호를 통하여 서로의 감정, 생각, 느낌, 태도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수신해서 서로 공통된 의미를 수립하고 나아가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및 행동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인간은 의사소통을 하는 동물로 인간이 하는 모든 일에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것으로 인하여 가족관계를 비롯한 모든 인간관계가 이루어진다(최종수, 1986, 37). 가정에서는 가족원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여러가지 상호교섭을 하므로써 하나의 집단으로 응집하여 목적을 향해 노력할 수 있는 것이다. 가정생활은 정보사회내에서 영위되며 가족들은 의사소통에 의하여 상호 연결되어 가정을 구성해 나간다(박경자, 1982, 11). 의사소통은 체계의 목표달성에 대한 기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관리적 도구가 될 수 있으며, 가족성원이 역할을 수행하고 그들의 생활을 관리하는 능력을 갖도록 한다. 그 기능성은 가족구성원의 요구를 기대하고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인적·물적 자원을 사용하는 능력이다. 충분히 이해가 된 메시지의 교환은 목표를 뚜렷하게 하고 두 사람이상과 관련된 표준을 명료화하며 계획을 전달하고 또한 결과에 대한 만족이나 불만족을 검출하는데 필수적이다. 공통의 관심사가 이 효율적인 인간상호간의 의사소통으로부터 발전하거나 또는 이러한 공통 관심사가 의사소통을 촉진시키거나간에 잘 적용된 가족내에서의 의사소통은 긍정적이고 상호적인 기반을 만든다(가정관리학 연구회, 1991, 197).

모든 가족은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가족개개인의 발전과 함께 가정생활의 개선을 도모하며, 가정생활이 사회의 일반적 향상의 기반이 되도록 하기 위한 가정관리상의 목적을 갖는다(이정우, 1980, 1). 여기에서의 가정관리란 단순한 가사수행과는 달리 중요하고 다양한 의사결정을 수반하며, 일정수준의 창조적 기능을 요구하는 관리행위를 일컫는다. 이때 가족간의 의사소통은 의사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이 된다(Paolucci Hall과 Axinn, 1977, 149).

따라서 의사소통은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것이며, 의사결정이란 효율적인 가정관리를 하기 위한 방안이므로 의사소통은 가정관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은 가족의 구성원들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때에 가족의 목표에 도달할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관리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Deacon과 Firebaugh, 1981, 101). 즉, 가정의 목표는 가정의 안전과 발전을 실현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가정복지의 실현에 가족상호간에 있어서의 의사소통의 작용은 절대적이다. 가족원은 가정전체의 목표와는 달리 각

자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어떤 한 사람의 목표달성은 다른 가족원의 목적이나 전체 목표달성과 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각자 목적에 대하여 가족원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행해지고 그 목적이 타 가족원들에게 이해될 때 그 목표달성은 촉진된다.

그러므로 가정관리자는 통솔자적 입장에서 가정내의 중요한 결정을 위해 가족간의 의사소통 촉진과 친밀한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가정생활의 제반 문제와 불안, 갈등해소 및 행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인정되고 수용되고 있다는 느낌에 덧붙여 그들의 의사소통에서 개방성을 경험하려고 한다(이재연·최영희, 1990, 130) 잘 이루어진 의사소통 관계를 통해서 전달자는 전달함으로써 자신의 내적 긴장이 완화되며, 경험의 공유에 의해 안정감이 확립되고 상대방과의 관계확립, 혹은 관계확인에 의해 안정감을 획득할 수 있으며 수신자는 상대방과의 접촉에 의하여 정서적 안정 혹은 만족을 얻으며 필요로 하는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박민숙, 1985, 18).

한편 가족은 정보의 교환통로를 형성함으로써 상호작용과 규정된 흐름을 통하여 그 의미를 공유한다. Galvin과 Brommel(1982, 57-62)은 정보흐름의 유형화된 통로를 가족의 관계망이라 하여 4가지 관계망으로 구분하였다. 부연하면 사슬형(chain)의 관계망은 메시지가 고리를 통하여 앞으로 움직이거나 권위자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위계를 가지는 유형이다. Y형의 관계망에서는 메시지가 한 사람을 통하여 한 사람 이상의 다른 가족원들에게로 전해진다. 바퀴형(wheel)의 관계망은 모든 메시지를 다른 가족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한 가족원들에게만 의존하며, 완전통로형(all-channel)의 관계망에서는 쌍방적인 교환이 모든 가족원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의사소통은 모든 방향으로 흐르며, 가족원들은 모두 똑같이 가족문제의 토론에 참여하고 응답할 기회를 갖기 때문에 4가지 관계망 중 가장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방적이고 기능적인 가족내 의사소통은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을 궁극 목표로 하는 가정관리행동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 3. 가족내 의사소통과 가정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에 관한 연구

가족내 의사소통과 가정관리행동에 관한 연구는 별로 이루어진 바가 없으므로 가정관리행동과 가족간의 의사소통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가족환경적 변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주부의 연령

주부의 연령에 따른 도시주부의 가정관리행동에 대한 연구결과는 일치되지 않았다. 몇몇 연구에 의하면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옥, 1983; 유선희, 1986; 이정우·박미금, 1988), 또 다른 연구에서는 연령은 도시주부의 가정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연령이 적을수록 우수한 가정관리를 하고 있었다(장명옥, 1976; 김옥희, 1977; 박미금, 1984; 박현미, 1987). 한편 가정관리행동의 행위별·대상별, 또는 영역별에 따라 연령구분에 따른 집단간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주정숙, 1983; 황진자, 1983; 신유순, 1986; 조영희, 1986; 지금수, 1990). 그러나 이명숙(1987)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가정관리능력 점수가 낮았다.

부부간의 대화내용은 부부의 연령에 따라 변화하며(이근후·이동원, 1973), 부부간의 의사소통 이해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송말희, 1986). 또한 주부의 연령이 적을수록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이라고 하였으나(장호선, 1987), 몇몇 연구(박경자, 1982; 이정순, 1982; 조혜정, 1983)에서는 주부연령에 따른 의사소통정도와 이해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연구(박민숙, 1985)에서는 부부간의 연령차이가 적을수록 의사소통 효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주부의 교육수준

가정관리행동은 관리자의 지식과 정보수집에 따라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가정관리자의 교육기회 및 년수는 가정관리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 대부분의 선행연구(장명옥, 1976; 김옥희, 1977;

이정우, 1978; 1980; 지금수, 1982; 김정옥, 1983; 주정숙, 1983; 황진자, 1983; 이정숙, 1984; 박미금, 1984; 전은옥, 1984; 유선희, 1986; 박현미, 1987; 이명숙, 1987; 김정옥·박경규, 1989; 지금수, 1990)가 이점을 입증하였으며, 도시주부의 교육수준과 가정관리행동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Hawkins의 연구진(1977)은 표현적이며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집단은 교육정도가 높은 집단이라고 하였으며, Deacon과 Firebaugh(1975)도 교육정도는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Michel(1970)은 파리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를 대상으로 연구한 보고서에서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부간에 더욱 친밀한 의사소통을 한다고 있다. 국내 선행연구들(김정옥, 1982; 이정우·안동선, 1983; 정용재, 1985; 박민숙, 1985; 송말희, 1986)에서도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증대된다고 하였으며 김진숙(1983), 오연옥(1988)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정순(1982), 박경자(1982)연구에서는 주부의 교육수준에 따라 부부간 의사소통 정도가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정숙(1982)의 연구에서는 주부의 교육수준에 따라 의사소통 내용이 차이가 있었다.

### (3) 주부의 취업여부

주부의 취업은 이중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써(이동원, 1976), 가정관리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이정우, 1980). 김옥희(1977)의 연구에서도 비취업주부가 취업주부보다 우수한 가정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몇몇 연구(지금수, 1982; 황진자, 1983; 신유순, 1986; 조영희, 1986; 이정우·박미금, 1988; 김정옥·박경규, 1989)에서는 행동영역별로 주부의 취업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이정숙, 1984; 유선희, 1986; 이명숙, 1987)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라 부부간 의사소통유형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이정우·장병옥, 1987), 부모—청소년 자녀간의 대화는 비취업 어머니와의 대

화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진숙, 1983).

### (4) 자녀수

가정생활에서 자녀수는 가정관리자인 주부가 관리해에 할 대상 및 자원이므로 가정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수가 적으면 주부의 관심이 관리능력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이정우, 1978) 오정옥(1987)연구에서도 자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몇몇 연구(두경자, 1986; 이정수·오경희, 1988; 이정우·박미금, 1988)에서는 관리행동 영역별로 자녀수가 부분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연구(김정옥, 1983; 박현미, 1987)에서는 자녀수가 도시주부의 가정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혔다.

몇몇 연구(박경자, 1982; 조혜정, 1983)에서는 자녀수에 따른 부부간 의사소통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박민숙(1985), 송말희(1986)연구에서는 자녀가 없거나 적은 경우에 부부간 의사소통 정도가 높았다. 또 다른 연구(홍신혜, 1987)에서도 자녀수가 많을수록 낮은 정도를 보였다.

### (5) 결혼지속년수

결혼지속년수는 주부의 가정관리에 대한 경험축적기간의 장단이라는 측면에서 가정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국내 선행연구들(김옥희, 1977; 오정옥, 1987; 박현미, 1987; 이명숙, 1987; 김정옥·박경규, 1989)에서 이것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정우·오경희(1988)연구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정우·안동선(1983)연구와 송말희(1986)연구에서는 결혼지속년수가 길어질수록 부부간 의사소통 정도가 높아진다고 밝혔으며, 다른 연구들(김은숙, 1983; 원효중, 1984)에서도 의사소통 양식과 정도는 결혼지속년수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관리단계에 따른 부부간 의사소통연구(정용재, 1985)에서는 계획과 조정단계에서 결혼지속년수와 의사소통 정도와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다른 연구들(박경자, 1982; 이정순, 1982)에서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사회경제적 지위

가정내 소득은 가족자원으로써 가정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경제적 지위는 가족이 추구하는 목표, 가치, 자원의 유용성 및 가정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정우·오경희, 1988). 지금수(1982), 이정우·박미금(1988), 김정옥·박경규(1989) 연구에서도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가정관리행동이 우세하였고, 이정우(1982) 연구에서도 생활수준과 관리행동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주부가 지각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전체 가정관리행동은 유의한 차이를 밝히고 있다(지금수, 1990). 그러나 또 다른 연구들(이정숙, 1984; 이명숙, 1987; 이정우·오경희, 1988)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Hawkins, Weisberg와 Ray(1977)의 연구는, 사회계층에 따라 의사소통방법과 내용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월평균 생활비가 많을수록 의사소통 이해도와 일치도가 높았으며(이정순, 1982), 소득이 많아짐에 따라 부부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많았고(김쟁산, 1982), 다른 연구들(홍신례, 1987; 오연옥, 1988)에서도 의사소통 정도가 높았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및 가설설정

본 연구에서는 주부의 가정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기와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가정관리행동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이는 가족환경적 변인(주부의 연령·교육수준·취업여부, 자녀수, 결혼지속년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가설 1) 가정관리행동은 가족환경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가족내 의사소통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이는 가족환경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가설 2) 가족내 의사소통은 가족환경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1) 주부-남편 의사소통은 가족환경적 변

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2) 주부-자녀 의사소통은 가족환경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3) 가족내 의사소통과 가정관리행동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가설 3) 가족내 의사소통과 가정관리행동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3-1) 주부-남편 의사소통과 가정관리행동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3-2) 주부-자녀 의사소통과 가정관리행동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4) 가정관리행동에 관련된 영향변인의 독립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이상에서의 연구문제를 도식화하면 (표 1)과 같다.

2. 조사도구의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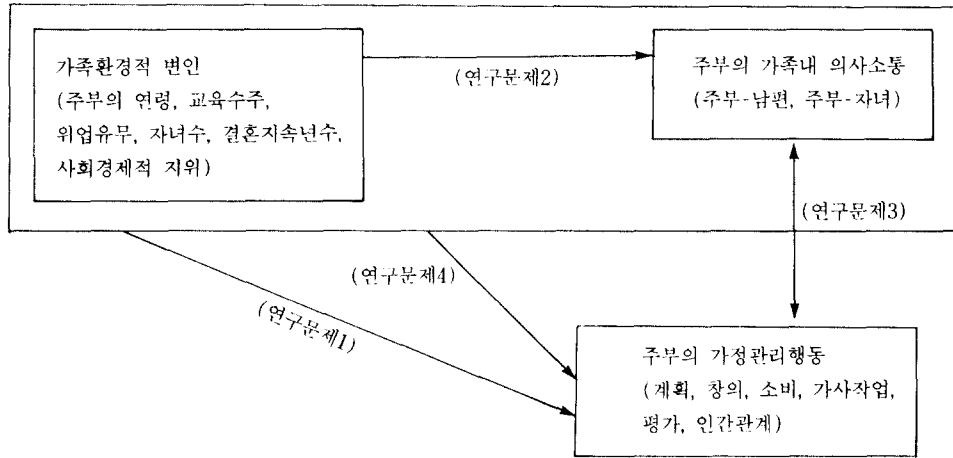
(1) 가정관리행동

장명옥(1976)의 가정관리행동에 관한 질문지를 중심으로 지금수(1990) 연구를 참고하였으며, 예비조사를 통하여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 하위영역으로 계획적, 창의적, 소비적, 가사작업적, 평가적, 인간관계적 관리행동의 6개 영역에 각각 6문항씩 36문항이며, 5단계 likert 형식을 적용하여 1점에서 5점사이로 점수가 높을수록 관리행동이 우수한 것을 나타낸다.

(2) 가족내 의사소통유형

주부-남편, 주부-자녀의 의사소통유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들(이정순, 1982; 송성자, 1985; 박민숙, 1985; 정명희, 1988; 정경애, 1989)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40개 문항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SAS program을 이용하여 Factor Analysis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요인적재치 50이상되는, 24문항(주부-남편 12문항, 주부-자녀 12문항)을 채택하여 5단계 likert 형식을 적용하였다. 1점에서 5점사이로 점수가 높을수록 효율적 의사소통을 나타낸다.

표1 연구모형



### 3.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주부로서 11개 구에 주부의 연령과 취업여부를 고려하여 임의 배포 조사하였다.

### 4. 자료수집 및 처리

본 연구를 위하여 1991년 4월초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90부를 배부하여 77부가 회수되고 이 중에서 73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SAS program을 이용하여 Factor Analysis를 실시한 후, 질문지를 수정하여 본 조사는 4월말에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총 500부를 배부하였으나 445부가 회수되었는데(회수율 89%), 이 중 기재미비로 50부를 제외한 395부가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AS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 산술평균, t-test, F-test를 실시하였고, 집단간의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하였다. 가족내 의사소통과 가정관리행동간의 직렬상관계수  $r$ 을 구하였고 가정관리행동에 관련된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 IV. 조사결과 및 분석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40대주부가 가장 많으며 교육수준은 중·고졸 주부가 72.4%로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자녀수는 2명인 가정(39.0%)과 3명인 가정(33.7%)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결혼지속년수는 자녀의 연령을 제한하여 선정한 결과 20년 이상이 66.6%를 나타내었다. 또한 주부가 취업한 가정(39.2%)보다 취업하지 않은 가정(60.8%)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선행연구와 1990년도 도시가계소득과 본 조사연구의 분포를 고려하여 상, 중상, 중하, 하집단으로 구분한 결과 중상집단이 33.9%로 제일 많았다.

### 2. 조사결과 및 분석

#### (1) 가정관리행동

본 조사대상의 가정관리행동의 일반적인 경향을 평균점수로 비교한 결과, 총 평균 3.06(61.2%)으로써 선행연구들과 비교해 볼 때 낮은 점수를 보이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변인	구분	N	%
주부의 연령	30대	87	22.0
	40대	231	58.5
	50대이상	77	19.5
	계	395	100.0
자녀수	1명	38	9.6
	2명	154	39.0
	3명	133	33.7
	4명이상	70	17.7
	계	395	100.0
주부의 교육수준	국졸	40	10.1
	중졸	110	27.8
	고졸	176	44.6
	전문대졸이상	69	17.5
	계	395	100.0
결혼지속년 수	10-14년	70	17.7
	15-19년	62	15.7
	20-24년	147	37.2
	25년이상	116	29.4
	계	395	100.0
주부의 직업	유무	155	39.2
	무	240	60.8
	계	395	100.0
사회경제적 지위	하	74	18.7
	중하	106	26.8
	중상	134	33.9
	상	81	20.5
	계	395	100.0

고 있다. 이것은 본 연구와 선행연구들과의 가정관리행동 영역차이 때문으로 생각된다. 영역별로는 인간관계적 행동이 3.55(71.0%)로 가장 높은 득점을 보였으며, 가장 낮은 득점을 보인 영역은 가사작업적 행동으로 2.42(48.4%)였다. 이는 박미금(198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나 지금수(1982)의 연구에서 가장 높은 득점을 나타낸 것과는 상반된 결과였다. 또 다른 연구(지금수, 1990)와 비교해 볼 때, 인간관계행동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일치하였다. 가사작업적 행동점수가 낮고 인간관계 행동점수가 높은 것은 예전의 가정관리행동과는 다르게 현대사회에서 인적 자원관리에 관심이 높아진 때문으로 보인다 (표 3 참조).

<표 3> 가정관리행동의 일반적 경향

가정관리행동영역	Mean	S.D
계획적	3.00	0.54
창의적	3.13	0.54
소비적	3.15	0.46
가사작업적	2.42	0.55
평가적	3.13	0.60
인간관계적	3.55	0.48
Total	3.06	0.32

(2) 가족환경적 변인이 가정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족환경적 변인이 가정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F-test, t-test,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표 4 참조).

① 주부의 연령

주부의 연령에 따른 가정관리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영역별로 가사작업적 행동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p < .05$ ).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은 득점을 나타내었다. 이는 연령이 많은 주부가 가사작업에서의 경험이 더 많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② 주부의 교육수준

주부의 교육수준에 따른 가정관리행동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1$ ).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정관리행동은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영역별로도 인간관계적 관리행동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인간관계 관리행동이 모두 높은 득점을 보이고 있는 것은 현대사회 가정에서의 애정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결과로 보여진다.

③ 주부의 취업여부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라 가정관리행동은 전체적으로도, 영역별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이정숙(1984), 유선희(1986), 이명숙(198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주부의 취업이 주부로서의 전통적인 역할과 대체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짐작해 볼때, 취업주부의 이중역할에 대한 문제를 시사하고 있다.

〈표 4〉 가족환경 변인별 가정관리행동

		계획		창의		소비		가사작업		평가		인간관계		Total	
		M.	D.	M.	D.	M.	D.	M.	D.	M.	D.	M.	D.	M.	D.
30대	87	3.10	A	3.18		3.19		2.33	B	3.22		3.58		3.10	
40대	231	2.99	AB	3.14		3.13		2.40	AB	3.11		3.56		3.06	
50대	77	2.94	B	3.07		3.17		2.55	A	3.06		3.49		3.04	
계및F	395	1.93		0.95		0.68		3.24*		1.60		0.82		0.77	
1명	38	3.12		3.22		3.16		2.59		3.21		3.55		3.14	A
2명	154	3.05		3.20		3.16		2.39		3.20		3.57		3.10	AB
3명	133	2.95		3.06		3.12		2.40		3.06		3.54		3.03	AB
4명	70	2.95		3.07		3.18		2.40		3.05		3.54		3.02	B
계및F	395	1.55		2.20		0.36		1.45		2.04		0.12		2.21	
국졸	40	2.67	C	2.82	C	2.85	B	2.36	B	2.87	C	3.52		2.85	C
중졸	110	2.94	B	3.06	B	3.18	A	2.34	B	3.10	B	3.61		3.04	B
고졸	176	3.05	AB	3.19	AB	3.19	A	2.40	B	3.13	B	3.52		3.08	B
전문대	69	3.17	A	3.27	A	3.17	A	2.62	A	3.33	A	3.55		3.19	A
계및F	395	8.53***		7.27**		6.56**		4.13**		5.21*		0.85		9.82***	
-15년	70	3.12	A	3.21		3.22		2.44	AB	3.23		3.58		3.13	
15-19	62	3.11	AB	3.20		3.08		2.27	B	3.22		3.56		3.07	
20-24	147	2.96	AB	3.11		3.15		2.43	AB	3.11		3.55		3.05	
25년-	116	2.93	B	3.08		3.14		2.46	A	3.04		3.53		3.03	
계및F	395	2.75*		1.21		1.06		1.89		1.96		0.17		1.51	
유	155	3.00		3.08		3.11		2.45		3.12		3.56		3.05	
무	240	3.01		3.17		3.17		2.40		3.13		3.55		3.07	
계및t	395	-0.10		-1.42		-1.36		0.90		-0.22		0.30		-0.49	
하	74	2.87	B	2.99	B	3.06	B	2.38	AB	2.99	B	3.55		2.97	B
중하	106	2.87	B	3.03	B	3.08	B	2.33	B	3.09	AB	3.59		3.00	B
중상	134	3.11	A	3.25	A	3.25	A	2.45	AB	3.17	AB	3.54		3.13	A
상	81	3.12	A	3.22	A	3.15	AB	2.51	A	3.24	A	3.53		3.13	A
계및F	395	6.48**		5.75**		4.10**		1.83		2.60		0.29		6.22**	

\*p&lt;.05 \*\*p&lt;.01 \*\*\*p&lt;.001

## ④ 자녀수

자녀수에 따른 가정관리행동은 전체적으로도, 영역별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이는 오정옥(1987) 연구와 영역별로 부분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두경자, 1986; 박현미, 1987; 이정우·오경희, 1988; 이정우·박미금, 1988)과는 일치하지 않았으나, 김정옥(1983) 연구와는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 ⑤ 결혼지속년수

결혼지속년수에 따라 가정관리행동은 전체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영역별로 계획적 관리행동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5). 즉, 결혼지속년수가 짧을수록 높은 득점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선행연구들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며, 이정우·오경희(1988)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결혼지속년수가 짧은 주부는 긴 주부보다 교육

수준이 높고, 가정생활 경험이 적어 의식적으로 계획적 관리행동을 추구하는 때문으로 여겨진다.

⑥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가정관리행동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p < .01$ ). 영역별로는 계획적·창의적·소비적 행동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p < .01$ ), 지위가 높을수록 행동점수가 높았다. 이는 이정우·오경희(1988), 이정우·박미금(1988), 김정옥·박경규(1989)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에서 가족환경적 변인중, 주부의 교육수준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정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가설 1)은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3) 가족내 의사소통

본 조사대상의 가족내 의사소통의 일반적인 경향은 평균점수가 3.51로 효율적인 의사소통유형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주부-남편 의사소통 3.35보다 주부-자녀 의사소통이 3.67로 더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표 5〉 가족내 의사소통의 일반적 경향

의사소통	Mean	S.D
주부-남편	3.35	0.47
주부-자녀	3.67	0.48
Total	3.51	0.38

(4) 가족환경적 변인이 가족내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가족환경적 변인이 가족내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F-test, t-test,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표 6 참조).

① 주부의 연령

주부의 연령에 따른 가족내 의사소통은 전체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p < .01$ ), 또한 주부-남편 의사소통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p <$

05). 즉, 연령이 적을수록 더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 주부의 연령이 적을수록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이라는 연구(장호선 1987)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적은 주부일수록 보다 개방적인 현대사회에 적응하여 가족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은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② 주부의 교육수준

주부의 교육수준에 따른 가족내 의사소통은 전체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p < .01$ ), 남편과의 의사소통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p < .01$ ).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 효율적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이는 선행연구들(정용재 1985; 박민숙, 1985; 송말희, 1986)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이는 가족내 의사소통 정도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주부의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자녀와의 의사소통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정도가 높다는 연구들(김진숙, 1983; 오연옥, 1988)과 같은 경향을 보이고는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③ 주부의 취업여부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가족내 의사소통은 전체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주부-남편, 주부-자녀와의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취업여부에 따라 부부간의 의사소통유형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연구(이정우·장병옥, 1987)와 부모-청소년 자녀간 대화는 비취업 주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김진숙, 1983)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조사대상의 차이에 따른 것일 수도 있으나, 현재의 취업주부들이 선행연구들의 취업주부보다 가족내 의사소통 중요성을 인식하여 더욱 노력하는 결과로 생각된다.

④ 자녀수

자녀수에 따른 가족내 의사소통은 전체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p < .05$ ), 주부-남편 의사소통도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자녀수가 적을수록 더 효율적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가족환경변인별 가족내 의사소통

			주부·남편		주부·자녀		Total	
			M.	D.	M.	D.	M.	D.
연령	30대	87	3.50	A	3.75		3.62	A
	40대	231	3.32	B	3.65		3.49	B
	50대-	77	3.27	B	3.64		3.45	B
	계및F		6.15*		1.36		5.11**	
자녀 수	1명	38	3.41	A	3.69		3.55	AB
	2명	154	3.42	A	3.71		3.57	A
	3명	70	3.29	A	3.68		3.48	AB
	4명-	133	3.28	A	3.56		3.42	B
	계및F	395	2.67*		1.58		2.80*	
교육 수준	국졸	40	3.18	B	3.54	B	3.36	C
	중졸	110	3.33	B	3.67	AB	3.50	B
	고졸	176	3.34	B	3.66	AB	3.50	B
	전문대	69	3.50	A	3.77	A	3.64	A
	계및F	395	4.25**		2.00		4.68**	
결혼 지속 년수	-15년	70	3.51	A	3.74		3.63	A
	15-19년	62	3.42	AB	3.67		3.54	AB
	20-24년	147	3.29	B	3.69		3.49	B
	25-	116	3.30	B	3.61		3.46	B
	계및F	395	4.38**		1.19		3.23*	
주부 직업	유	155	3.33		3.71		3.52	
	무	240	3.37		3.65		3.51	
	계및F	395	-0.83		1.14		0.18	
사회 경제 지위	하	74	3.30	B	3.59		3.45	B
	중하	106	3.26	B	3.64		3.45	B
	중상	134	3.38	AB	3.72		3.55	AB
	상	81	3.47	A	3.72		3.59	A
	계및F	395	3.56*		1.47		3.31*	

\* p&lt;.05 \*\*p&lt;.01

다. 이것은 박민숙(1985), 송말희(1986)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수가 적음에 따라 가족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 ⑤ 결혼지속년수

결혼지속년수에 따른 가족내 의사소통은 전체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p<.05), 주부·남편 의사소통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01). 즉,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더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이는 결혼지속년수가 길어질수록 부부간의 의사소통 정도가 많아진다는 연구들(이정우·안동선, 1983; 송말희, 1986)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 ⑥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가족내 의사소통은 전체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p<.05), 주부·남편 의사소통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05). 즉, 지위가 높을수록 더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표 7〉 가정관리행동과 가족내 의사소통과의 상관관계

		가정관리행동						
		계획적	창의적	소비적	가사작업 적	평가적	인간관계 적	Total
가족내 의사 소통	주부-남편	0.16 **	0.22 **	0.07	0.10 *	0.27***	0.16 **	0.27 ***
	주부-자녀	0.14**	0.29***	0.16 **	0.10*	0.31***	0.25 ***	0.34 ***
	Total	0.19***	0.32***	0.15**	0.13**	0.36***	0.26***	0.39***

\* p<.05 \*\* p<.01 \*\*\* p<.001

있다. 이는 선행연구들(홍신례, 1987; 오연옥, 1988)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에서, 가족환경변인 중에서 주부의 취업여부의 모든 변인이 가족내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가설 2)는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또한 모든 변인이 주부-남편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1)은 긍정되었으며, 주부-자녀 의사소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2)는 부정되었다.

(5) 가족내 의사소통과 가정관리행동간의 관계

가족내 의사소통과 가정관리행동간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적률상관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가족내 의사소통과 가정관리 행동간에는 비교적 정적 상관관계( $r=.39, P=.001$ )를 나타내었고, 주부-자녀의 의사소통과 가정관리행동간은 보다 낮은 정적 상관관계( $r=.34, P<.001$ )를 보이고 있으며, 주부-남편의 의사소통과 가정관리행동간에는 낮은 정적상관관계( $r=.27, P<.001$ )를 나타내었다.

또한 소비적 행동과 주부-남편 의사소통간을 제외한 모든 영역별 관리행동과 주부-남편, 주부-자녀 의사소통간은 낮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가족내 의사소통과 가정관리행동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므로 (가설 3)이 긍정되었다. 또한 주부-남편, 주부-자녀의 의사소통과 가족중관리행동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 (가설3-1)과 (가설 3-2)가 긍정되었다

〈표 8〉 가정관리행동에 관련된 영향변인의 독립적 경향

	가정관리행동	F	R <sup>2</sup>
주부의 교육수준	0.062	13.317***	0.19
사회경제적 지위	0.011		
가족내 의사소통	0.306***		

\*\*\* p<.001

(6) 가정관리행동에 관련된 영향변인의 독립적 영향

가족환경적 변인중, 가정관리행동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인인 주부의 교육수준과 사회경제적 지위, 그리고 가족내 의사소통이 가정관리행동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표 8 참조). 그 결과 가족내 의사소통(0.306)만이 가정관리행동에 유의미한 영향변인이었다( $P<.001, R=.019$ ). 따라서 가족환경변인중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인은 가정관리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가족환경적 변인이 가족내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침으로인하여 가정관리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가족을 중심으로 한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가족간의 이해증진과 애정의 증진으로 가

정관리행동의 질적 향상 및 가족의 행복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산시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가정관리행동과 주부-남편, 주부-자녀 의사소통 효율성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정관리행동의 전체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06(61.2%) 이었다. 영역별로는 인간관계적 행동이 3.13(62.6%), 계획적 행동 3.00(60.0%), 가사작업적 행동 2.42(48.4%)순이었다.

(2) 가정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환경적 변인은 주부의 교육수준( $P<.001$ )과 사회경제적 지위( $P<.01$ )였다.

(3) 가족내 의사소통의 일반적 경향은 평균점수가 5점 만점에 3.51로 효율적인 의사소통유형을 나타내고 있다. 주부-남편은 3.35, 주부-자녀는 3.67이었다.

(4) 가족환경적 변인중, 가족내 의사소통이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인은 주부의 연령( $P<.01$ ), 교육수준( $P<.01$ ), 자녀수( $P<.05$ ), 결혼지속년수( $P<.05$ ), 사회경제적 지위( $P<.05$ )이었다.

(5) 가족내 의사소통과 가정관리행동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r=.39, p<.001$ ).

(6) 주부의 가정관리행동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친 변인은 가족내 의사소통(0.306)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가족내 의사소통은 주부의 가정관리행동에 유의미한 영향변인이었고,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가족간의 의사소통이 효율적일수록 가정관리행동이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가족간 의사소통을 통하여 가족의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가족의 만족도를 증진시키려 하는 것이다. 또한 효율적 의사소통으로 인한 가족간의 애정을 확인하여 심리적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 가정관리행동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연령이 적을수록, 결혼지속년수가 짧을수록,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녀수가 적을수록 더 효율적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정관리행동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원활하고 효율적 의사소통과 우수한 가정관리행동 수행을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교육기회의 증대와 아울러 연령이 많고

결혼기간이 오래된 주부들에게 평생교육program으로써 새로운 교육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자녀수가 적을수록 더 효율적 의사소통을 하고 있으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큰성과를 나타낸 가족계획 시책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가정관리행동 영역중에서 인간관계적 행동이 가장 우수한 점은 현대 애정적 기능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고무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가족내 의사소통에서 주부-자녀 의사소통보다 주부-남편 의사소통이 더 효율적이지 못한것은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족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즉, 부부관계보다 자녀와의 관계에 더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가족환경변인이 주부-자녀 의사소통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더 효율적 의사소통을 위하여는 주부-남편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가족내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가 주부뿐만아니라 전 가족원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으면 한다. 아울러 가족내 의사소통유형에 대한 표준화된 척도개발이 이루어져야겠다.

둘째, 급격히 변하는 가정생활에 적합하게 가정관리행동의 척도개발에 대한 연구가 보다 심층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한다.

셋째, 가족내 의사소통 및 가정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환경변인중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객관화된 지표의 연구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 【참 고 문 헌】

- 1) 가정관리학회, 가족자원관리, 서울:한울, 1991.
- 2) 김경숙, "가족간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관동대논문집, 제10집, 1982, pp. 11-35.
- 3) 노동연감, 경제기획원, 1990.
- 4) 김옥희, "부산지역 주부의 가정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동아대 석사학위논문, 1977.
- 5) 김은숙,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부의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상명여대 석사학위논문, 1983.

- 6) 김생산, “부부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1983.
- 7) 김정옥, “도시주부의 가정관리능력에 관한 연구”, 효성여대 여성문제연구, 1983, pp. 63-75.
- 8) 김정옥·박경규, “도시주부의 가정관리능력에 관한 연구”, 효성여대 여성문제연구, 1989, pp. 270-51.
- 9) 김진숙, “어미나와 청년기 자녀와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1983.
- 10) 두경자, “가정관리행동과 커뮤니케이션과의 관계”, 상명여대논문집, 1986, pp. 357-393.
- 11) 문숙재, “문화가 가정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18권 3호, 1980, pp. 21~28.
- 12) ———, “가정관리행동을 위한 인류학적 접근”, 대한가정학회지, 제19권 4호, 1981, pp. 65~71.
- 13) 박경자, “부부 상호간의 의사소통과 가정생활 행복도와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이대 석사학위논문, 1982.
- 14) 박미금, “도시 저임금치업주부의 가정관리에 대한 가치의식과 가정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숙대 석사학위논문, 1984.
- 15) 박민숙, “부부간 의사소통 효율성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이대 석사학위논문, 1985.
- 16) 박현미, “가정관리능력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이대 석사학위논문, 1987.
- 17) 송말희, “도시주부의 커뮤니케이션 이해도와 결혼만족도간의 관계연구”, 숙대 석사학위논문, 1986.
- 18) 송성자, “한국부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가족문제에 관한 연구”, 숭전대 박사학위논문, 1985.
- 19) ———, “가족관계와 가족치료”, 서울:홍익제, 1987.
- 20) 신유순, “전북지역주부의 가정관리지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 전북대 석사학위논문, 1986.
- 21) 오연옥, “사춘기자녀와 어머니간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숙대 석사학위논문, 1987.
- 22) 유선희, “도시주부의 가정관리행동과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동아대 석사학위논문, 1986.
- 23) 원효중, “부부간의 의사소통양식과 의사소통 불만 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4.
- 24) 이근후·이동원, “도시가족내의 부부간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이대논총, 제22권, 1973, pp. 277-305.
- 25) 이동원, “직업여성의 이중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연구원논총, 제27집, 1976, p. 229-265.
- 26) 이명숙, “도시주부의 가정관리능력 및 자원인자에 관한 연구”, 숙대 석사학위논문, 1987.
- 27) 이은숙, “한국가족의 부부간의 권위관계에 대한 유형적 접근”, 한국사회학, 제11집, 1977, pp. 95-107.
- 28) 이재연·최영희역, 의사소통과 가족관계, 서울:형설출판사, 1990.
- 29) 이정숙, “도시주부의 가정관리능력과 자아실현성간의 관계”, 숙대 석사학위논문, 1984.
- 30) 이정순, “부부간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이대 석사학위논문, 1982.
- 31) 이정우, “도시주부의 가정관리능력에 관한 연구”, 숙대논문집, 1978.
- 32) ———, “가정관리성취에 관한 연구”, 숙대 박사학위논문, 1980.
- 33) ———, 가정관리연구, 서울:수학사, 1981.
- 34) ———, “가족환경적 요인이 가정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대논문집, 1982, pp. 167-195.
- 35) ———, “가정관리지식과 관리행동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창간호, 21983, p. 3-9.
- 36) 이정우·박미금, “도시 기혼여성의 가치관과 가정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숙대논문집, 1988, pp. 301-323.
- 37) 이정우·인동선, “도시부부의 커뮤니케이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아세아여성연구, 제22집, 1983, pp. 63-85.
- 38) 이정우·오경희, “가정경영에 대한 가치관이 가정관리행동유형에 미치는 영향”, 숙대논문집, 1988, pp. 27-57.
- 39) ———, “가정관리행동유형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6권1호, 1988, pp. 131-148.
- 40) 이정우·장병욱, “기혼여성의 의사소통유형과

-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아세아여성연구, 제26집, 1987, pp. 215-242.
- 41) 장명옥, “우리나라 주부의 가정관리행동의 실태 조사와 그의 효율적인 관리방법에 대한 연구”, 서울대가정대논문집, 1976, pp. 21-53.
- 42) ———, “가정관리학연구, 서울:교문사, 1976.
- 42) ———, “가정관리학, 서울:교문사, 1982.
- 44) 장호선, “부모-자녀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성심여대 석사학위논문, 1986.
- 45) 조영희, “도시주부의 가정관리행동유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6.
- 46) 조은경, “기능적인 가족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이론적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권1호, 1984, pp. 131-150.
- 47) 전은옥, “도시주부의 가정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1984.
- 48) 정경애, “중요유무가 부부간의 갈등해소 및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이대 석사학위논문, 1989.
- 49) 정명희,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청소년 문제행동과의 관계연구”, 성심여대 석사학위논문, 1988.
- 50) 정용재, “부부간의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와와의 상관연구”,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1986.
- 51) 주정숙, “주부의 가정관리능력에 대한 조사 연구”, 공주사대논문집, 1983, pp. 129-144.
- 52) 지금수, “주부의 가정관리행동에 대한 조사 연구”, 전북대논문집, 1982, pp. 205-206.
- 53) ———, “어머니와 미혼딸의 가정관리능력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8권4호, 1990, pp. 155-176.
- 54) 최중수역, 커뮤니케이션원론, 서울:전예원, 1986.
- 55) Adams, B.N., *The Family A Sociological interpretation*, 3th ed., Chicago: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 1980.
- 56) Baker, D.M., “Morphostatic & Morphogenic Planning Behavior in Families:Development of A Measurement Instrument”, The Ohio State Univ., Ph. D., 1975.
- 57) Beard, D.M. & M.F.Francille, “Morphstatic & Morphogenic Planning Behavior in Families:Development of A Measurement Instrument”, *Home economic research journal*, 6(3), 1978.
- 58) Berelson & B.A.Steiner, *Home Management Context & Concepts*, N. J.:Houghton Mifflin Co., 1975.
- 60) Galvin, K.M. & B.J.Brommel, *Family Communication Cohesion & change*, Illinois:Scitt Foresman & Co., 1982.
- 61) Gross,I.H., E.W.Crandall & M.M.Knoll, *Management For Modern Families*,5th ed., N.J.:Englewood cliffs, 1980.
- 62) Hawkins,J.A., C.Weisberg & D.W.Ray, “Spouses Kifferences in Communication style:Preference, Perception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 Family*, 39, 1977, pp.585-92.
- 63) ———, “Marital Communication Style & Social Class”, *Journal of Marriage & Family*, 39, 1977, pp. 479-90.
- 64) Maloch, F. & R. E. Deacon, “Proposed Framework for Home Management”, *Journal of Home Economic*, 58(1), 1966, pp. 31~5.
- 65) Michel, A., “Wife’s Satisfaction with Husbands Understanding in Par-ision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 Family*, 32, 1970, pp. 351-59.
- 66) Nickell, P., A.S. Rise & S.P. Taker, *Management in Family Living*, 5th ed., N.Y: John Willy & sons Inc., 1976.
- 67) Paolucci, B., “An Historical Overview of Concept Identification in Home Management”, *Conceptual Framework*, Michigan State Univ., 1964, pp. 3-5.
- 68) Paolucci, B., O.A. Hall & N.W. Axinn, *Family Decision Making & Ecoy-stem Approach*, N.Y: John Wiley & sons, Inc., 1977.
- 69) Rice, P.F., *Marriage & Parenthood*, Boston: Allyn & Bacon Inc., 1979.
- 70) Shannon, C.E. & W.Weaver, *The Mathematical Theory of Communication*, Chicago: Univ. of Illinois Press, 1949.